

펑크 모델



김명원(68, 남가주)

굵게 빽은 머리가 치렁치렁 발뒷꿈치에까지 내려왔다. 머리의 양쪽은 빽빽 밀어 버렸다. 빽은 머리가 파란색이니 망정이지 누런색깔이었다가는 구렁이인 줄로 알고 질겁을 했을 거다.

맨살을 뚫어서 뛰어 놓은 귀걸이만도 5개에다가 코걸이가 하나 입술 걸이가 하나 모두 7개의 고리로 단장을 했다.

이름도 괴이한데 여기선 실명을 쓸 수가 없으니 그냥 'K'라 부르자.



화실 방에 들어서자마자 Costume을 원하느냐 누드를 원하느냐 묻지도 않고 훌러덩 다 벗어던지고 모델 대 위로 올라간다.

매번 20분 포즈를 취하고 쉬는 시간이 되면 Robe를 걸치지도 않고 내려와 별건 알몸뚱이로 이젤 사이를 누비고 다닌다가 남들이 그린 자기의 나체상을 들여다보며 수다를 떨곤 한다.

K 같은 패션 스타일을 평크스타일이라고 한다. 평크는 1970년대에 영국과 미국에서 시작되었다. 당시의 불안정한 사회적 정치적 상황에 환멸을 느낀 젊은이들은 주류사회의 흐름을 거스르고 DIY 사조 속에서 패션도 상업성을 거부하여 개인의 창의적 디자인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다.

권위에 대한 반항정신은 전통과 관습의 틀에 갇힌 기존의 美와 패션의 개념에 도전하여 의도적으로 추하고 불결해 보이는 미학(Grungy Esthetic)을 만들어 냈다.

길거리에서 어쩌다 보게 되는 평크 차림의 사람들은 웬지 가까이했다가는 봉변을 당할 것 같아서 멀리서만 보았지 이렇게 근접해서 보기에는 처음이다.

1960년대의 히피들은 전통과 권위를 불신하면서도 평화와 사랑을 노래했고 가사도 달콤하고 로맨틱했었다. 반면에 1970년대의 평크족은 히피족 보다 더 공격적이며 노래 가사도 도발적이고 멜로디와 템포도 거칠고 원색적이다.

영국의 Sex Pistol이라는 그룹의 'God Save the Queen'을 들어보라.

앨범 재킷에 엘리자벳 여왕을 커다란 웃 핀으로 코를 뛰어 놓았다.

Safety Pin은 평크들이 자주 쓰는 엑세서리의 하나다.

K가 돌아다니다가 내 그림을 들여다보더니 "I like it!" "I like it a lot. Wow!" 하며 감탄을 한다.

남들은 다 누드 전신상을 그리는데 나만이 그녀의 얼굴을 실물 사이즈로 크게 그리고 있었고 더구나 그녀의 자존심일 터인 귀걸이를 하나하나 실물 그대로 그리고 있으니 안 좋아할 수가 없는 거다.

누드야 노상 그리는 거지만 평크 모델은 자주 볼 수 없는 거라 생각하니 평크의 패션을 자세히 기록할 수 있는 초상을 그리는 것이 더 좋은 아이디어 일 것 같았던 것이다.

예의상 그녀의 칭찬에 대꾸를 한답시고 그 긴 머리가 무겁지 않느냐고 물었다. "No, not at all. You wanna check it out?" 하며 사양할 틈도 없이 나의 손위에 둘둘 감은 머리 타래를 옮겨놓는다.

엉겁결에 받았다가 타래가 저절로 슬슬 풀어지는 바람에 손에서 놓쳐버렸다.

"Oh no, I am sorry. I didn't mean to drop it like that."

"It's ok. Nothing's broke."

나는 크게 당황하고 미안해하는데 반해 K는 별로 기분이 상한 것 같지가 않다.

무게를 가늠해 볼 사이도 없이 나는 왜 그걸 그렇게 황망히 떨구어 버렸는지 또 왜 그렇게 과장되게 사과를 했는지 모를 일이다. 징그러워서 그랬기도 했겠지만 아무리 머리카락 다발이라 할지라도 별

거벗은 여자의 신체발부를 나의 손으로 만진다는 것이 Remote(원격적으로)하게나마 불륜스럽게 느껴진 모양인가.

나 같은 부양무괴(俯仰無愧) 한, Happily married man의 무의식 세계에서는 능히 가능한 일이다.

자기 초상이 어찌 돼가나 궁금했던지 K가 자주 와서는 한마디씩 하고 간다. 귀걸이 그리기를 다 끝낸 것을 보더니 K가 곧 귀걸이를 하나 더 할 참이란다.

"You got no more spot in your ear for another piercing." 했더니

"Yes I do. I'm gonna have a tragus ring."

K는 내가 예상한 대로 레스비안이었다. 동거하고 있는 그녀의 파트너가 마약을 끊은 지가 일 년이 되어가기 때문에 그걸 축하하기 위해 트래거스 링을 하나 달려고 하는데 자기도 함께 할 거란다.

"What is the tragus ring?"

"Tragus is this thing right here, you see?"

자기의 뺨을 들이대며 보여 주는데 보니 바로 귓구멍 앞에 있는 톡 튀어나온 부분이다.

어쩐지 '트래거스'란 말이 귀에 설지가 않더라니. 트라구스니 헬릭스니 등은 학교 때 다 공부한 귀 부위의 해부학 용어들이 아닌가.

그녀의 설명을 듣기 전엔 '트래거스'가 평크족 Fashion의 대부 이름쯤이나 되려니 생각했던 거였다.

그림을 그리며 모델과 이렇게 많이 수다를 떨어 보기는 처음이다.

볼썽사나운 코뚜레와 괴이한 헤어스타일의 몰골을 처음 보았을 때는 오만 정이 다 떨어져 버렸었는데 몇 번 이야기를 하다 보니 애가 보기처럼 그렇게 아주 생각이 없는 애 같지는 않다. 평크라고 다 피하고 업신여길 것은 아닌가 보다.

날 보고 그림을 팔 거냐 묻길래 그냥 취미로 그리는 거라고 했더니, 자기의 취미는 가끔 풀밭에 누워 높은 하늘을 쳐다보는 거란다.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왜 그런 취미를 갖게 됐느냐 물어보지는 못 했다.

개미들처럼 땅바닥에 딱 붙어서 한치도 위로 날지 못하는 고된 삶을 살다가 없이 넓고 푸른 하늘을 쳐다본다?

하늘을 쳐다보는 취미의 이면에는 짓눌리는 평면적 일상의 속박으로부터 드높은 차원에로의 해방을 꿈꾸는 염원(念願)이 숨겨져 있는 게 아닐까?